

포장발전에 디딤돌역할될터

김상철 / (주)크라운제과 구매팀 대리

(사)한국포장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제6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서 (주)크라운제과 구매팀 김상철 대리가 1백점 만점에 96.9점을 획득, 총 115명 가운데 1등으로 수료했다.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증 취득을 목표로 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번을 토대로 포장 관련 분야에 저의 역량을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현재 (주)크라운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철 대리는 포장재료 구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포장재료 구매 및 원가분석, 품질, 사양개선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포장기술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포장기술관리사에 응시하게 된 김상철 대리는 “즐거 쓰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며 “단순하게 조달 업무에만 본인의 업무 영역을 한계 지을 수 없기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철 대리는 이번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준비하면서 3개월 가량 매주 빠짐없이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기에 업무의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포장기술에 대해서 폭넓게 접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는 김 대리는 “환경 및 위생에 관련된 포장기술에 대해 좀더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김 대리는 “포장의 보호성, 취급 편리성, 판매촉진성, 정보성, 상품성, 환경친화성, 유통합리화 및 경제성 등의 기능과 역할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에 포장산업의 중요도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포장업계 종사자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포장의 혁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증을 앞으로 포장기술발전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 여기겠다는 김상철 대리. 그는 포장기술관리사로서 지금까지 익힌 작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도전, 특히 포장 재료의 합리적인 가격 구조, 품질 개선 및 공정 개선에 역량을 집중시켜 포장 발전에 디딤돌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교육과정, 현장 업무에 접목시키고자 노력

조재형 / (주)누벨피엔에스 생산부 반장

제6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서 (주)누벨피엔에스 생산부 조재형 반장이 96.3점으로 전체 수료자 가운데 2등으로 수상했다.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포장인으로서 ‘포장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는 조재형 반장은 “3개월 동안 상업포장과 공업포장의 전반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계기를 갖게 돼 개인적으로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재형 반장이 근무하고 있는 철강 포장 전문 업체인 (주)누벨피엔에스는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해원에스티 등 국내 유수의 철강 생산 업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제품의 품질 향상과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철강재 코일 방청포장(아웃소싱)과 철강포장 자재 공급, 포장 자재 생산을 하고 있으며 코일 포장 자재의 생산·서비스 분야에서 ISO 9001 인증을 획득,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80% 이상이 철강재 포장 업무 현장 경험자이고, 모든 사원이 업종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포장업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조 반장은 누벨피엔에스 입사 후 철강포장은 코일 포장자체가 방습, 방수 등은 기본이면서 크게는 고객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생생히 경험한 뒤 포장 분야가 얼마만큼 과학적인가를 비로써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포장기

술관리사를 준비하면서 업무와 교육을 병행한다는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그는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현장 업무에 접목시키고자 매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통신교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공개교육을 통해 보다 더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포장은 모든 산업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재형 반장은 포장산업은 곧 우리의 생활이며,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포장기술관리사를 준비하면서 더욱 폭넓은 지식습득의 욕심이 생겼다는 그는 앞으로 상업포장과 공업포장 공부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고의 포장전문가를 향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조재형 반장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포장기술관리사, 유용한 수료증으로 발전되길

강기장 / 대림산업(주) 품질기술팀 과장

제6기 포장기술관리사에 96.2점을 획득, 3등으로 합격한 대림산업(주) 강기장 과장은 “부족한 저에게 상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훌륭한 수료자 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포장산업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기장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대림산업(주)은 BOPP FILM(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Film)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인쇄용, 매트, 일반 포장용, 앨범용, 담배 포장용, 합지용, 방담, 열접착, 합성지 필름 등이 있다. 현재 그는 품질기술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원(유지보수) 및 환경관리와 소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에 매번 참가하고 있는 대림산업 직원들은 항상 좋은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

소수점 차이로 등수가 같린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기장 과장은 “기계유지, 환경 업무, 소방관리 업무 등으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일과 속에서 겨우 책

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새벽 1~2시로 시간적 제약이 가장 힘들었으나 보약까지 챙겨주며 뒷바라지 해준 아내 덕분에 교육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강기장 과장은 포장기술관리사가 포장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육이니 만큼 포장산업 발전에 유용한 수료증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가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주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료자들이 포장산업 발전에 헌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 달라는 강기장 과장.

앞으로 그는 청소년 복지사업을 통해 기술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장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더욱 포장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받았을 때 포장 상태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듯이 포장산업은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역할까지 책임진다는 것에 포장의 매력을 느낀다는 강기장 과장. 그가 계획하고 있는 바람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

통신교육 통해 체계적으로 포장 분야 정리

황 준 호 / 삼우정판인쇄사 영업관리 실장

제6기 포장기술관리사에 96.2점을 획득, 공동 3등으로 합격한 삼우정판인쇄사 영업관리 황준호 실장은 “포장기술관리사 심사원 및 포장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열심히 교재 들여다보면서 자필로 답안지를 제출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게끔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상남도 마산에 위치한 삼우정판인쇄사는 현재 칼라 포장인쇄(옵셋인쇄)와 패키지가공(톰슨, 합지, 접착) 사업을 펼치고 있다. 1999년부터 삼우정판인쇄사의 인쇄포장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 실장은 주로 영업, 수주, 발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삼우정판인쇄사의 사업장의 물량이 경인쇄에서 종합인쇄, 품질과 기계의 마모를 요하는 지기인쇄쪽으로 점차 바뀌어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을 공부하고자 이번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자격을 응시하게 된 황 실장은 “시간적 제약의 어려움 이외에는 통신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포장 분야를 정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각종 포장 실험을 대행해주는 검사서를 의뢰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실험실, 대기업 리스트, 견적산출예시를 통해 제품을 분석



하는 방법, 디자인 설계시 프로젝트 진행방향 예시 등 포장업의 노하우를 책이나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보완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덧붙여 그는 “협회가 지류, 인쇄, 잉크, 플라스틱, 디자인분야 등 종합적인 유대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교류의 장를 열어 온라인상의 홈페이지 지원,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빈약한 소규모 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장산업은 설비와 자본력 있는 큰 업체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유통이라는 종목이 있는 한 포장은 어디든 존재합니다. 한품목 한품목 개발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가질 수 있어 자기의 노력여하에 따라 만족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는 더욱 내실을 다져 회사설비 확장에 매진하고 거래업체를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삼우정판인쇄사의 디자인과 포장으로 제품이 전국 매장에 진열되고 수출되기 위해 온 직원이 업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